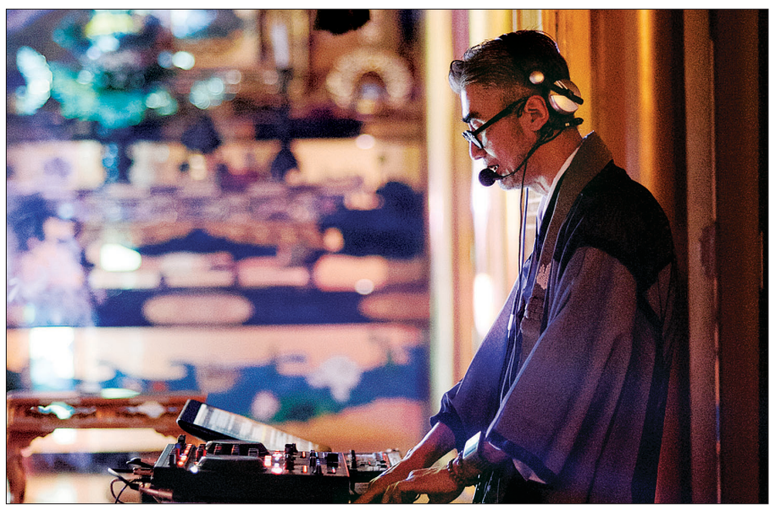
日 이색 천도재 "테크노 음악으로 극락 재현"

DJ 출신 아사쿠라 승려, 현대식 천도재 젊은층 '열광'


쇼온지 교센 아사쿠라 승려는 테크노 음악과 현란한 조명을 동원한 사찰 천도재를 봉행한다.
사진출처=makef.jp

日 승려, 사찰천도재 부흥 위해
최신음악 · 장비로 천도재 봉행
"화려한 극락세계 재현하고파"
불자들 성원에 지속 약속

불교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무관심으로 썰렁하던 한 사찰이 테크노 음악으로 들썩였다. 장엄한 부처님 극락세계를 테크노 음악과 사이키델릭 조명으로 재현한 쇼온지 사찰 천도재가 일본 젊은 불자들 사이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웹사이트 'Odditycentral'은 2월 10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이 현 북부 후쿠이시 쇼온지(조은사, 照恩寺)의 교센 아사쿠라(49) 승려가 DJ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테크노 음악과 현란한 조명을 동원한 사찰 천도재를 봉행한다"며 "쇼온지 측은 이 같은 테크노 천도재가 젊은 불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찰의 경우 대부분 납골당 시설이 있어 시민들은 사찰서 불교식 천도재를 지내는 상례가 보편적이다. 일본 불교 특유의 '단가제도'는 시민들의 모든 상례를 사찰이 책임지고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로, 일본 사찰 운영 기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인구 및 불자 감소와 젊은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사찰 천도재가 줄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례가 필요할 때 스님을 대여하주는 '마이테라'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불교계선 사찰 천도재 자체가 사양 사업으로 접어들었단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쇼온지 아사쿠라 승려는 불교와 사찰 천도재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사찰 내부를 클럽처럼 꾸미고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음악과 조명 기술로 천도재 봉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Odditycentral'에 따르면 테크노 천도제는 아사쿠라 승려는 경내 DJ 스테이션을 마련, 염불을 인텔리전트 댄스와 브레이크 비트 음악과 함께 편집해 스피커로 내보낸다. 이때 사원 내부는 프로젝션 매핑 조명 불빛을 쏘아 금 장식을 두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교센 승려는 "부처님 극락세계는 땅이 7보로 되어 광채가 빛난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에도 사찰 내부를 황금 나뭇잎으로 장식하는 등 가장 선진적이고 화려한 기술을 접목, 극락세계를 표현해왔다"며 "나는 테크노 천도제 프로젝트에 현대식 조명과 영상기술 및 음악을 도입해 종교에 익숙하지 못한 현대인들이 부처님 극락세계를 접하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크노와 불교의 만남은 극락세계와 부처님 가피의 현대적 이미지 전환이다. 이 같은 시도는 현대인에게 불법을 포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아사쿠라 승려는 테크노 천도재 진행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웹사이트 'Readyfor'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진행했다. 테크노 천도재가 현장에서 참여한 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 행사 진행 비용이 비싸 지난해 2차례 봉행에 그쳤기 때문이다.

아사쿠라 승려는 "추모제를 위해선 조명 장비, 프로젝션 매핑 장비, 소프트웨어 등 비싼 기기가 필요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했다. 목표금액 3,000만원을 2주도 되지 않아 훌쩍 넘겨 현재 38명의 후원자로부터 3,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며 "앞으로 테크노 천도재에 대한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쇼온지 측은 "올해 첫 테크노 천도재는 5월 3일 봉행되며 대중에 개방하기 때문에 누구든 참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캄보디아 승단에서 일어난 성추문, 마약 스캔들로 인해 과거 캄보디아 불교계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사진출처=사우스이스트아시아글로브

캄보디아 불교, 각종 스캔들로 위상 하락

젊은이들 "불교에 매력 못 느껴"

국민들, 타락한 불교계 염증 느껴 '반발'
승가 교육 수준 저하도 큰 원인으로 대두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불교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우스이스트아시아글로브는 2월 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승단에서 일어난 성추문, 마약 스캔들로 예전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스님들에게 가졌던 존경심은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하며, 캄보디아 불교 현황을 진단했다.

2016년 6월 시엠립에 있는 한 사원의 주지인 봉 쳇 스님은 10명이 넘는 행자 스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2명의 스님이 어린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2명의 스님은 2015년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투옥됐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 승단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 대중들의 경멸은 더욱 극심해졌다. 결국 캄보디아 불교계에 대한 반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스님들의 불교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스님이 되기 위해 승적에 이름을 올렸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나 제자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반라타나 박사는 "불교 발전과 승가 생활의 기준이 뒤쳐지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놈펜에서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렌(26)은 "스님들은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며 "그들은 스님을 직업으로 삼지만 경전이나 교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의 서구화와 급속한 경제 발전 또한 불교가 침체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대두된다.

1975년 크메르루주가 정권장악을 하기 전 불교는 캄보디아의 도덕 · 교육 · 문화적 중심지로서 여향을 끼치며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대개의 교육기관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종교교육을 하게 된다. 1970년 통계에 다르면 캄보디아 불교 사원에서 운영한 초등팔리어 학교는 529개, 학생수는 1만983명, 불교 고등학교는 2개로 학생수는 500명, 불교대학은 1개로 11명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불교의 사회적 활동은 1975년 크메르 루즈의 안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폴포트에 의해 수십만 명이 학살된 캄보디아는 종교도 완전히 없애버렸다.

폴포트를 내몰고 헴 삼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몇 군데의 사원이 복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승려가 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과학적 유물론은 미신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폴포트의 학살 만행을 피해 용케도 살아남은 스님들이 더 이상 불교 교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비(非)종교적 학교와 대학이 갈수록 늘어, 승가의 사회 · 문화적 영향력을 잠식해 갔다.

분신추온 스님은 "이전에는 문학이나 기술이 배우고 싶으면 절에 가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선택권이 있어 사찰에 갈 필요가 없다"며 "프놈펜의 왓 랑카 사원의 스님들은 5년 새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년간 지속된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에게 기술적 진보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어 사찰에 대해 매력을 덜 느끼게 만들었다.

카이 소반라타나 스님(27)은 "사찰 밖에 더 많은 직업이 있다. 젊은 소년들은 조용히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을 갖고 인생을 즐기는 데 더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소림사 주지 슈 용씬, 횡령 · 혼외자식 '무혐의'

2015년 소림사 출신 승려들 고발로 의혹 불거져
1년 6개월 만에 중국 당국 조사결과 발표


사진출처=Financial Times

중국 소림사(少林寺, 샤오린샤) 주지 슈 용씬(釋永信 · 사진 가운데) 스님에 대해 불거졌던 횡령 및 혼외자식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슈 용씬 스님은 미국 MBA출신으로 지난 1999년 34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소림사 주지가 됐다. 이후 쿵푸를 상업화한 공연과 쿵푸 학교 운영 등으로 연매출 1,500억 이상을 기록하며, 소림사를 거대 상업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슈 용씬 스님은 중국서 인민대표로 정치행사에 참여하고 푸틴 대통령 · 성룡 · 애플 CEO 팀쿡 등 세계 유명 인사들과 만나며 'CEO 스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5년 소림사 출신 스님 6명이 슈 용씬 스님의 비리를 폭로하며 거액의 공금 횡령과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것. 슈 용씬 스님이 가짜 신분증으로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고 그 사이 사생아까지 있으며, 소림사 주식의 80%를 개인 명의로 빼돌린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당국은 슈 용씬 스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슈 용씬 스님은 몇 달 간 잠적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1년 6개월여 만의 수사 결과 슈 용씬 스님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2월 7일 'Financial Times'는 "지방정부가 소림사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슈 용씬 스님은 회사 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없다"며 "가장 문제가 됐던 15대의 외제차는 슈 용씬 스님이 아닌 소림사 소유"라고 보도했다.

또한 2010~2012년 사이 슈 용씬 스님의 상좌 중 한명의 이름으로 기부됐던 수 백 만의 인민폐는 사찰발전기금과 승려연수기금으로 사용됐으며, 배당금을 얻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림사 주식을 불법 취득했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슈 용씬 스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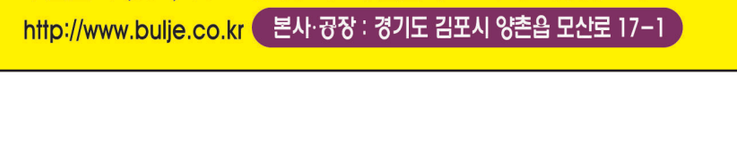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